

## 에스겔 1강

우리가 어디 있는지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던지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상고할 때 깊이 우리 마음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볼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 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또 깁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그때 기억이 나는데, 한절씩 공부를 해야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데는 건물의 치수라던가 방이 몇 개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성경을 대충대충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씀은 잘 읽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 레위기서 같은 것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한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구절도 놓치지 마시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시작이 반입니다.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많이 에스겔서에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공부해도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이제 이 예언이 우리 목전에 이루어질 때가 바로 가까워왔다는 사실이

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고생해서 이렇게 받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지만, 그분이 참 고생한건 이루 말 할수 없죠.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거죠.

우리 오늘은 에스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 먼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에스겔, Ezekiel 그러죠. 끝이 e로 끝납니다.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에스겔, 에스겔이란 뜻은 나의 힘은 하나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돼야죠 그렇죠. 사도바울이 능력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빌 4:13).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라. 또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뜻이요. 여러분 다니엘도 e로 끝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도 정말 이방나라에서 사역하는 그들에게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택해서 일하는 것을 볼 때,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e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 로힘. 엘인데 로힘입니다. 이건 뭔가 복수예요. 세 분이 하나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자,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그랬죠. 엘로힘. 이 바로 엘이라는 거기서 나온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3장 8절 구절에 나와요. 내가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현지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그당시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셨다 하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죠. 에스겔은 아내

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네 아내가 내일 죽을거니까 너 울지말라, 그러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하나님이죠.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실감이 나요. 저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못 흘리게 하시더라구요. 눈물을 한방울도 못흘리게 해요. 거참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야 이게 이런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는데 그냥 그날로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제자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죽은자로 죽은자를 장사하게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얼마나, 이거 얼마나 말씀이 정말 매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건 뭐, 인간의 인정 정도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정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는 죽이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고생시킨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는거는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찬송을 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에 있는, 바벨론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소망을 준 사람이다. 소망을 준 사람인데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떠냐. 큰 바벨론인 로만 캐톨릭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느냐, WCC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포로로 잡힌걸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에스겔서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지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가지를 보게 되면, 24장 16절을 보면. 뭐 찾을 필요 없어요. 인자야 보라 내가 한번 때림으로 네게서 네 눈에 욕망을 제거하노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하나님이 한번 딱 때려가지고, 인간의 정을 싹 없애버렸어요. 인간의 욕망을 싹 없애버렸어요. 욕신의 어떤 욕망을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한번 때리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거예요. 사도바울. 그는 결혼하지 않았죠. 틀림없이 하나님한테 한번 맞고 그 모든 정욕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네가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면 결혼해라. 그러나 나처럼 사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사는 세상에 잠깐동안 사는 세상에 참 그럴것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럴 수 없죠. 네 아무나 그럴수 없습니다. 참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더라. 나는 내가 받은 명령대로 아침에 행하였더라. 아침에 행하였더라. 이게 저녁에 아내가 죽으니까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한번 탁 때려가지구요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는 인정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한국도 독립하기 전에 일제시대 때 일제 치하에서 정말 한국의 회복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도 육신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다. 능력이라는게 뭐 병고치는 능력이 아니죠. 이 능력은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의 표적이 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하는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게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그렇죠? 뭐 능력을 행하고 뭐 뭐 그냥 안수를 행하고 이게 뭐 능력이 아니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거고 정말 능력, 진짜 내가 능력을 받으면, 내 자신이 능력을 받으면, 내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있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선지잔데,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사역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되기 전에 미리 예언을 했죠. 포로로 잡혀간다. 망한다. 이러다가 여러 번 죽을 뻔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남아서 거기 아주 그 바빌론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다 내버려두고, 쓸만한 사람은 데려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죠. 사실 그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다니엘은 거기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이미 있었죠. 같은 곳에 살고 있었습시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과 노아와 욥이 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세 사람만이 자기 의로 자신의 혼의 구원을 간신히 받는다. 그럴 때 에스겔은 성령 안에서 다니엘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욥도 의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죄인 가운데선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사람이다.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죠. 그가 온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아... 많이 주시니까 그랬죠. 다 가져가보세요. 주를 욱하리다. 그랬죠. 한번 해봐라 그랬죠. 참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욥이나 노아같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루시퍼, 결국 마귀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 나오는데, 28장에 가보면 두로왕에 대해서 나와요. 두로왕. 두로왕에 대해서 책망이 나가다가 그 두로왕이 뭐로 변신 하나하면 마귀, 마귀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28장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UFO를 보는 것처럼 보여요 UFO.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UFO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UFO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하죠. 그 모양도 이야기 하죠. 번쩍 번쩍 한다고 이야기 하죠. 주님이 오실 때 틀림없이 적그리스도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UFO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것으로 저는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바로 UFO 비슷한 것이 나온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을 공부하는 동안은 우리가 길게 안하겠어요. 한 25분 정도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좀 하시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해도 이게 다 소화가 안되요.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요한 계시록에서 종합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걸 또 하게 되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은 이 에스겔서는 주님이 재림해서부터 천년왕국에 이를 때까지예요.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휴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서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아멘. 완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민족, 유다도 그렇고 이방민족도 그렇고, 이방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지금 회복을 아는 사람도, 외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1948년 정도로 끝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들어간다. 여기까지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천년왕국때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단 지파까지 회복이 되는겁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그래서 48장 가보면 회복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유프라테부터 나일강까지의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될 때에 그 땅을, 그 도성을 뭐라 하나하면, 여호와 삼마, 즉 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도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모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왕국(kingdom)입니다. 킹덤,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마귀 때문에 잠깐 흐트러진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왕국을, 이미 마귀는 쫓겨났죠 하늘에서. 셋째하늘에서 이미 쫓겨나서 지금은 둘째 하늘에서 있습니다. 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제 계시록 12장가면 땅으로 쫓겨나죠. 나중에 땅으로 쫓겨났다가 천년왕국때는 무저갱으로 쫓겨나죠. 천년 통치 끝에는 완전히 불못으로 쫓겨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지금은 마귀왕국 아닙니까. 마귀가 통치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킹덤(kingdom)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Kingdom of God)에 당신을 초청하러 왔습니다. 이민와가지고, 미국에 이민와가지고 초청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 들어왔는데 당신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때도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어떤 우주공학자가, 지금 대학교수입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우주여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주에 갔다온 후에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 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군요, 백인이고 뭐고 문을 두드리고 해요. 사람들이 안들어먹어요, 안믿어요, 나 예수없어도 잘 산다고 말이죠.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Don't bother me. 문을 쿵쿵 닫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킹덤을 전해라. 당신은 지금 오케이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킹덤이 될 때에는 당신들은 그때는 안된다. 그때는 당신 안된다. 그날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날이 올 꺼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깐 사람들에게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미니스트리를 만들었냐 하면, 더 리즌 투 빌리브(The Reason to believe).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런 사역을 만들었어요. 리즌 투 빌리브. 이런 사역.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저기 코비나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코비나에 있었을 때. 너무 좋더라구요. 참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깨닫고 하면 멋지게 합니다. 순수하게 합니다. 목자들보다 더 멋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어야합니다. 아멘. 여기서 신학교에서 주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때, 이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되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시죠. 그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 성전에 그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럴 땐 조금 지루하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됩니다. 그럼에도 건너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한군데도 빼내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말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겔서를 어려워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요. 여기서 막 번쩍번쩍 하는게 내려오는데, 이거는 아 불이 있다. 뜨겁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안믿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안믿는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고,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잘 모르고, 이해가 안가면, 그것을 그냥 영적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요 불같은 분이요 뜨거운 분이요. 번쩍번쩍 거리는 분이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말이죠.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1장에서 주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이것 재림으로 보질 않는거예요. 재림을 안믿는거예요. 철저하게 마귀가 그렇게 속여왔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을 때,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또 다시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깨달은 말씀을 다시한번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줄 믿습니다. 아멘. 하다보면 이제, 계속해서 confirm이 될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말씀들이 계속 confirm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야 정말, 이게 이렇구나. 사람들이 잘 얘기 안하고 잘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확실하신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제를 우리가 다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거예요. 예수믿고 천국가자 이정도 가지고 안되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에스겔처럼 우리 이마가 부딪혀서 되어가자구 겁내지 않고 말이죠. 담대하게 나가는 이러한 신앙에 삶이 됩니다. 조만간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영적으로도 어려워지는데, 지금 살아나는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성령충만되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만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충만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 충만케 되요. 이것 알아야 되는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같이 나가야지, 말씀만 많이 알아도 안되고, 기도만 많이 해도 안되요. 이게 벨런스가 맞아가지고, 기도할 때 이 받은 말씀이 성령께서 탁 붙잡아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어야지, 이게 대게 벨런스가 안맞아. 기도만 여섯시간 일곱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그런 기도할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제 에스겔서 공부할 때는 기도할 시간을 20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음성을 듣는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바로 목전에 와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목전에 와 있고,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갈 그날이 정말 목전에 와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5편에. 내가 아침에 기도하니 내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니 내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리이다.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